

코트디브와르, 錄音機需要 계속 增大

- 家電製品類 市場展望 밝아 -

코트디브와르(舊名: 아이보리 코스트)에는 電子製品의 生産 및 組立工場이 全無하다.

농업에 근간을 두고 經濟 發展을 이룩해 온 코트디브와르는 最近 輸入代替産業과 輸出産業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나 일부 經工業 부문과 基幹産業 육성 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 電子製品 生産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政府 또한 뚜렷한 電子産業 육성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라디오 겸용 錄音機의 경우 高級品은 日本이 그리고 低級品은 自由中國 및 香港이 市場을 석권하고 있으며, 錄音機 및 錄音再生機는 日本이 약 60%를 占有하고 나머지는 프랑스, 英國, 西獨, 自由中國 등이 차지하고 있다.

輸入을 위해서는 貿易省의 輸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國內生産이 全無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輸入許可制일 뿐 거의 자동적으로 輸入이 허가되며, 가까운 장래에 輸入規制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디브와르는 비교적 高關稅를 부과하는 國家이다. 그 이유로서는 國內産業 보호 및 國家 財政 확보라는 두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經濟的으로는 아직도 프랑스인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트디브와르 내에서 프랑스 계통 회사에 의해 생산하는 품목은 對外輸入을 억제키 위해 프랑스인들이 배후에서 교묘히 조정 高關稅를 부과해 하는 것도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電子製品의 경우에는 國內生産이 全無하기 때문에 주로 國家財政 확보라는 면에서 高關稅를 부과하고 있다.

輸入賦課金으로서는 錄音機 및 錄音再生機, 라디오 겸용 錄音機의 경우 品目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關稅 5~7%, 財政輸入稅 20~60%, 그리고 附加價值稅 20~25%로서 道합 50~100%의 높은 輸入賦金을 적용하고 있다.

◎年度別·國別 輸入실적

단위: 금액-천弗  
수량-천대

〈851539-라디오 겸용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

國 別	1978		1979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西 獨	289	1,541	130	801
프 랑 스	184	4,313	-	-
日 本	6,372	79,458	2,859	33,784
홍 콩	3,128	129,020	2,091	79,912
싱 가 폴	57	947	151	2,363
韓 國	109	2,117	433	8,330
自由中國	2,562	54,754	2,843	54,564
中 共	-	-	-	-
其 他	455	8,524	325	1,722
總 計	13,154	280,674	8,832	181,476

〈9211-錄音器 및 錄音再生器〉

國 別	1978		1979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日 本	1,986	16,500	1,642	13,171
프 랑 스	624	4,436	377	2,111
英 國	323	3,254	273	2,611
西 獨	165	1,949	57	550
이탈리아	166	2,318	-	-
韓 國	-	-	57	486
自由中國	166	4,035	55	2,039
브 라 질	-	-	-	-
其 他	489	2,791	375	4,017
總 計	3,922	35,283	2,866	24,985

資料: 코트디브와르 關稅庁 貿易統計

대부분의 工産品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레바논 등 주로 外國係 商人들이 商權을 장악하고 있다. 日製, 西獨製 등의 有名 브랜드製品은 대부분 프랑스인들이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輸入 販賣하고 있으나 홍콩, 自由中國, 韓國 등 開途國 製品은 주로 현지의 레바논계 상인들이 輸入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심한 貧富 격차로 인해 소비층은 소수의 부유층과 대부분의 빈곤층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中間 消費階層의 불충분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中級品의 진출이 다소 어려운 곳이기도 하다.

일반 대중들은 男女老少를 불문하고 특히 大靑의 라디오 겸용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를 대단히 좋아하고 있다.

同品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 코트디부아르 輸出은 錄音機가 80年の 경우 19만 3,000弗로 아직도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현지 消費者들이 韓國商品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품질면에서는 우리 製品이 自由中國, 홍콩을 능가하지만 거래 조건면에서 自由中國, 홍콩은 일부 D/A, D/P 거래를 행하고 있어 L/C 베이스만을 고수하는 우리나라는 불리한 입장에 있고, 더구나 우리나라의 支社가 全無하고 세일즈맨들의 現地 방문도 매우 드문 데 비해 日本의 有名 메이커들은 현지의 有力 代理店을 선정하여 강력한 販賣網을 구축하고 있는 외에도 支社員들이 현지에 주재하면서 이들 代理店을 지원하고 있다. 自由中國 및 홍콩의 경우에도 빈번한 展示會 개최, 세일즈맨 團의 파견 등을 통해 市場 開拓 活動이 우리나라를 능가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현재 主宗 輸出品인 커피 및 카카오의 作況 不振과 國際時勢 하락으로 인한 外換사정 冱박, 최근 달러 貨 強勢 및 프랑스 프랑貨 弱勢로 인한 세파프랑의 약세 등으로 일반적인 市況이 좋지 못하여 침체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 이미 1,200弗선을 넘어선 1人當 國民所得, 높은 인구 증가율로 國內 電子製品 需要는 계속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同國은 海底油田 開發에 성공하여 이미 일부는 생산 단계에 들어갔으며, 향후 2~3년 내에 輸出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家電製品 需要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對 파나마 컬러TV 輸出物量 確保 시급

- 14인치 供給不足으로 輸出 위축 -

파나마는 TV 自体生産이 全無하여 需要全量을 輸入에 의존하고 있다.

年間 輸入 규모는 1억 7,698만 2,000弗 (78년 콜론 自由貿易 地帶 輸入 実績)에 달한다.

TV는 우리나라의 對 파나마 電子製品 輸出의 70%를 점유하는 主宗 輸出品으로 80년도 輸出実績이 3,224만 7,000弗로 79년의 1,961만 3,000弗에 비해 64.4%의 伸張率을 기록했다.

이와 같이 TV 輸出이 好調를 보인 것은 최근 인근 中南美諸國의 점진적인 輸入 門戶 開放政策과 컬러TV 放映 開始 國家가 증가함에 따라 需要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컬러TV 放映이 개시되어 輸出物量이 감소됨에 따라 對 파나마 輸出은 작년말부터 금년초에 걸쳐 供給物量이 부족한 상태로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파나마를 포함한 中南美地域에서의 컬러TV 需要는 가격 차이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인치보다는 14인치 TV가 많이 需要되고 있는데, 우리 國內市場에서의 市販도 19인치보다 14인치를 선호하고 있어 同品의 輸出 余力 부족으로 금년 1/4分期 중 對 파나마 輸出이 더욱 위축되었다.

우리나라의 對 파나마 컬러TV 輸出은 파나

## ● 海外電子市場情報 ●

마 자체 市場보다는 인근 中南美諸國에 대한 再輸出이 위주가 되고 있는데, 향후 輸出 전망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1) 中南美 최대의 컬러TV 市場인 아르헨티나의 政權이 교체됨에 따라 新政府의 經濟政策의 向방을 파악치 못해 대부분의 輸入商들이 輸入을 觀望하는 태세에 있으며, 아울러 아르헨티나 폐소貨의 계속적인 平価切下 등도 輸入을 둔화 시키고 있다.

2) 베네수엘라의 經濟政策(輸入政策) 불명, 즉 14인치 이하 TV는 1%, 19인치는 50%의 関稅賦課 예정이며, 일부에서는 完製品에 대한 輸入規制 움직임도 있으나 政府 방침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3) 콜롬비아의 경우 電子製品에 대한 輸入許可書 발급을 중지하고 있어 密輸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4) 其他 中南美諸國의 政情 불안과 外貨 부족으로 인해 輸入 需要의 부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製品이 현재 日本과 경쟁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自由中國이 최대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데, 컬러TV는 自由中國의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보다 비싼 편이고, 品質面에서도 우리 製品이 약간 좋다는 평을 받고 있다.

自由中國은 불리한 여건하에서도 우리의 최대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市場戰略이 우수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한편 杼 파나마 輸出 증대의 방안으로는

1) 과도한 運賃부담 節減에 따른 가격 경쟁력 提高를 위해 中南美 定期航路 開設 또는 中南美 運航路線의 增設이 요망된다.

2) 또한 少量 受注를 기피하거나, 物量供給 面에서도 美国地域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中南美地域을 소외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 이 요망되며,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制度의 확립이 요망되고 있다.

## 美国, 비디오 테이프 市場

- 輸入規制 없고 GSP 公여되고 있어 유리 -

美国의 80년도 中 비디오 테이프 需要는 금액으로 2억 5,760만弗, 數量으로 1,531만臺를 기록하여 前年對比 46%의 높은 伸張率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VTR의 需要 급증추세에 따른 것으로 81년도에도 VTR의 需要가 급증 추세에 있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需要者들의 VTR을 保有하기 시작한 지와 2년을 전후하고 있어 需要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디오 테이프 공급은 예상 需要量 에서 이외의 초과 需要가 발생하여 비디오 테이프가 부족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 80년도의 경우 供給業者들은 VTR의 판매를 70만臺로 예측하고 1,800만개의 테이프를 시중에 보급하였으나 80년중 VTR 販賣量은 80만臺가 팔려 결국 기존 VTR 보유자용 테이프 需要量을 확보치 못하여 物量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테이프 物量 부족 현상은 오는 82년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美国의 VTR 保有台數는 82년도중 2배로 늘어나는 데 비해 테이프 공급 능력은 50% 이상의 증가가 힘들기 때문이다.

美国의 비디오 테이프 市場에 이와 같이 장기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자 일부 業者들은 이름 없는 브랜드의 값싼 下級品들을 市場에 내놓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은 品質이 좋은 브랜드를 찾고 있어 값싼 製品들은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비디오 테이프의 초과 수요가 80년도 및 81년도에도 계속 발생하자 美国의 비디오 市場을 독점하고 있는 日本을 비롯한 美国 内 각 테이프 生産業者들은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다.

日本에서는 JVC가 지금 月 150만개의 生産能力을 갖추었으며, Matsushita는 지난 80년에 生産을 시작, 81년도 중 生産能力을 3배 늘려 月 100만개를 생산할 것이라고 하며, Matell 및 Fuji社도 금년 중 生産施設의 증설을 완공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美国 内에서는 日本系의 Sony를 비롯한 Memorex, 3M, BASF, Ampex 등 주요 기존 테이프 메이커들은 生産라인의 증설을 이미 완료하고 공급을 늘리고 있으며, 그 외에 Ampex社가 3배 増設중에 있고 TDK社는 5,000만弗의 새로운 工場을 건설중에 있다.

특기할 것은 荷蘭의 Phillip社와 美国의 Dupont社가 合作投資한 PD Magnetics社가 81년 말경이나 82년초에 全機種의 비디오 테이프를 생산 공급할 계획에 있어 비디오의 Software業界는 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디오 테이프의 物量 부족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테이프 製造業界는 향후의 판매 증대를 위해 消費者들에게 브랜드의 명칭을 널리 알리고자 販賣 促進 政策을 전개하는 한편, Dealer들 상대로는 비디오 市場과 비디오 테이프의 収益性을 소개하는 教育廣告를 펼치고 있다.

이 결과 消費者들의 브랜드 인식도는 매우 향상되어 消費者들은 이름있는 브랜드의 品質에 보다 많은 選好를 두고 있다.

1~2년전만 하더라도 消費者들은 VTR機種과 같은 브랜드의 테이프를 사거나 또는 값이싼 製品을 사는 경향이 뚜렷했으나 지금은 30~40% 정도가 VTR과 같은 브랜드의 테이프를 선택하고 있으며, 나머지 50% 이상은 유명 브랜드의 테이프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비디오 테이프 製造業界의 활발한 광고 활동으로 消費者들은 VTR機種과 테이프는 서로 상이한 技術에서 製作되는 별개의 특수 분야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Fuji, TDK, 3M 등 有名 製造業체들

은 消費者 및 판매업자들은 상대로 한 활발한 教育廣告 이외에 다수 購買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등 판매촉진 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즉, 2개의 테이프를 살 경우 두번째 부터의 테이프는 할인해 주거나 5개의 테이프를 살 경우 한개의 테이프는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수 販賣 誘引 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이 결과 消費者들의 年平均 購賣量은 1년 전 4~6개에서 8~15개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表 1. 美国의 비디오 테이프 販賣 推移

單位: 千美  
百弗

區分	1979年 販賣		1980年 販賣		
	數量	金額	數量	金額	增加率
Beta	4,567	173,072	6,028	90,420	23.7
VHS	5,400	102,600	9,288	167,184	62.9
合計	9,967	175,672	15,316	257,604	46.6

註: 增加率は 金額基準임 (자료: Gralla Publication)

80년도 중 美国의 비디오 테이프 輸入은 9,702만弗로 前年對比 3.4%로 약간의 증가로 그쳤으나 80년도 중 需要가 42% 감소한 Reel 테이프를 제외하면 비디오 테이프 輸入은 VTR의 높은 인기도를 반영하여 실제로는 20% 증가했다.

이 중 日本이 總 輸入 가운데 98%라는 市場을 점유하고 있어서 美国의 비디오 테이프 市場 역시 日本의 독무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西獨, 홍콩, 自由中國 등이 市場점점을 위해 약간의 輸出을 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市場進出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VTR 市場이 예측을 불허하는 새로운 市場일 뿐 아니라 日本의 基本 特許 保有로 기타 관심있는 國家들이 VTR機種 자체를 生産할 수 없어 테이프의 본격 生産과 流通組織 구축을 할 수 없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美国의 비디오 테이프 需給 均衡을 움직

## ● 海外電子市場情報 ●

이고 있는 日本은 美国市場의 크기에 못지않은 自国内 市場과 유럽 市場의 需要도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市場인 中東과 中南美 市場을 확보하기 위해 適正量을 공급해야 하는 즐거운 供給能力 부족의 문제를 안고 있다.

表 2. 美国의 비디오 테이프 輸入推移 (單位: 千佛)

區 分	1978 輸入	1979		1980	
		輸 入	增加率	輸 入	增加率
西 獨	-	1,206	0	957	△20.6
韓 國	150	302	101.3	201	△33.5
홍 콩	189	519	174.6	705	35.8
自由中國	97	287	195.8	75	△73.9
日 本	66,409	90,378	36.1	94,712	4.8
總 輸 入	68,762	94,051	36.7	97,025	3.4

[자료: U. S. General Imports通関基準]

비디오 테이프에는 쿼타등의 아무런 輸入 규제가 없다.

또한 VTR에는 GSP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비디오 테이프에는 GSP가 공여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途上國의 輸出은 매우 유리하다.

輸入關稅는 從價稅로서 5.6%(TSUSA Item No. 724. 4540-60)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새로운 시장인 비디오 테이프 市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많은 경쟁국이 참여하지 않아 日本의 독무대 市場인 점을 감안하여 오디오 테이프의 販賣促進 방식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販賣投資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日, VTR · 컬러TV 輸出 最高 水準

日本의 VTR, 컬러TV 輸出이 계속 증가하여 금년 上半期(1~6월) 前年同期對比 輸出台數는 115.5% 증가하였고 컬러TV는 61.2%로 증가한 307만대에 달했다.

日本業界에서는 下半期에도 순조로운 신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어 年間 合計는 80년의 525만대를 크게 上廻, 600만~700만대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의 輸出実績을 보면 VTR은 79년의 167만대에서 80년엔 2배가 증가한 344만대로 확대되고 금년에는 연초부터 前年同月對比 배가 증가하는 속도로 신장되어 6월에는 月間 베이스로는 처음으로 60만대에 도달, 上半期 전체로 281만대에 달했다.

이는 작년 1~10월 累計를 20만台南 上廻하는 것으로 7월 중에도 작년 1년분과 맞먹는 실적을 보일 전망이다. 金額으로 1~6월의 실적은 2,386억円이다.

地域別로는 美国이 121.2% 증가된 86만대로 제일 많고 다음은 西獨 49만대, 英國 36만대 순으로 됐다. EC 合計로는 124.7% 증가한 110만대에 달했다.

日本 家電業界에서는 2大 市場인 美国, 歐洲에서 급속도로 보급이 확대되고 또한 각 메이커의 生産能力이 달마다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年間 輸出台數는 650~700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할편, 컬러TV도 재작년 후반부터 계속 증대되고 있다.

금년엔 특히 對美 輸出이 크게 신장되고 있는데 그것은 美国의 컬러TV 需要가 회복되어 日本 메이커의 現地生産分 만으로는 뒤쫓아 가기 바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6월 合計로는 48만대로 前年の 2배 이상 수준에 달하고 있다. 美国에서는 美国 製品의 급증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높아 가고 있어 日本業界에서는 그 동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中南美 등에서는 최근 컬러TV 방송이 개시되어 그에 따라 需要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컬러TV 방송이 없는 지역에서도 VTR 需要에 이끌려 컬러TV 輸出이 늘어나고 있다.